日 '불교 이탈' 원인 1순위는 '승려'

'사람 대하는 태도' '금전감각'에 부정적
일본불교계, 도쿄서 긴급 심포지엄 열어

박영빈 객원기자

신도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일본불교. 이러한 '사찰 이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심포지엄이 도쿄에서 열렸다고 9월 7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지난 8월 23일 도쿄에서 '사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종파를 초월해 많은 주지스님들이 모였다.

심포지엄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소재한 사찰은 약 7만7200곳. 그러나 이 중 2만여 사찰이 현재 주지가 없는 무인 사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사찰의 유지와 경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일본 최대종단인 정토진종 혼간지파가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종단에 소속된 사찰들 가운데 연 수입이 300만엔(한화 약 3천만원) 이하인 사찰은 45% 이상, 연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미만인 사찰도 10%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보시금이 부담"이라는 이유로 신도회에서 탈퇴하거나, 사찰에 모셔둔 선조의 묘나 위패를 반환받는 등의 '사찰 이탈'이 심각하다는 보고도 나왔다.

최근 '사찰 이탈'에 관해 일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원인'으로 '승려'

일본불교 사찰 7만7200곳
연 수입 500만원 안 되는
빈곤사찰 수두룩해 '위기'
전통vs현대화 화두 떠올라

가 25.3%로 집계됐다. 이는 사찰의 '인적구조(6.7%)'나 '교리의 내용(4.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일본불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22.8%로 제일 많았고, '일반인과 다른 금전감각'이 18.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불이 여법하지 않다(4.8%)', '법문의 역량부족(13%)' 등 기존 불교계에서 중요하게 여긴 항목은 비교적 낮게 집계됐다.



심포지엄에서 토론하는 주지스님들.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스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 사람 대하는 태도 22.8%
2. 금전감각 18.5%
3. 법문 역량부족 13%
4. 여법하지 않은 예불 4.8%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야시마 죠쥰 스님은 "승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근간에 둔 서비스업자"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죠쥰 스님은 "현대사회와 사찰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일본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거나 장례를 맡기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여법한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출가자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교토에서 온 타나카 류겐 스님은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 대중이 스님들을 선택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류겐 스님은 "되레 이러한 현상이 스님들 간의 경쟁심리를 일으켜 스스로의 행동과 말을 관리하고, 대중에게 더욱 접근하기 위해 연구하는 계기가 된다"며 경제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주장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나라에서 온 타나카 젠기 스님은 "절에서 대대로 이어온 전통과 역사를 전하는 것에 불법이 깃들어 있다. 불법을 어떻게 전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적 측면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최근 일본불교계에서는 기존의 포교법과 사찰경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고 있다. 사찰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지역 이벤트에 함께하는 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달라이라마 병환설, 중국 측 선동"

달라이라마 일본 대표부, 공식입장 발표

지난달 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일본에 소재한 '달라이라마 법왕 일본대표부 사무소'(이하 일본 대표부)는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묻는 본지의 질문에 9월 6일, 인터넷 메일 공식계정을 통해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매우 건강하시다"고 밝히며 건강이상설을 일축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일본 대표부 측은 앞서 보도된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는 중국 측의 선동이며, 친중국 경향의 기자가 받아서 보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13일 공식적으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전립선암이라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체탕 도르제 씨는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셨지만,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치병, 혹은 심각한 건강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일정을 병자가 모두 소화하겠는가. 존자님께서는 그 연령에 비하면 매우 건강하신 편이다"고 단언했다.

이어 체탕 씨는 문제가 된 전립선암이라는 병세에 대해 "2015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의 전조가 포착됐고,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대학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치료했다. 최근 동일한 의료진이 재검했으나 병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완치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달라이라마 스스로도 일축한 바 있다. 지난 8월 북인도 라닥지역에서의 법문을 마치고 다람살라로 귀환하는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건강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피곤할 뿐, 몸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직접 밝혔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다람살라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가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일본에서 법문이 예정돼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중병도 못 꺾은 재가불자 불사 원력

美 웨스트민스터 불교공동체
화재로 소실된 사원 재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최근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건물을 짓고 있다고 더댄버채널이 9월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당신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여행할 때 웅장하면서도 곡선미를 뽐내는 빨간 지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라오스 불교 사원의 재건축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사원은 앞서 2011년 전기 화재 사고로 일부 소실됐다. 보험금은 단지 화재 수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됐다. 그 후 지역사회 라오스인들이 모여 불교 공동체 재건축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본업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시간을 쪼개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수니 기스트(Sunnie Gist)는 "진척은 느리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일을 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현재 보이는 작업량의 90%가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화재로 소실된 라오스 불교 사원 재건축에 나선 수니 기스트.

사진출처=더댄버채널 방송화면

기스트는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지역 불교 공동체가 결집하기를 희망하면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시간과 건축재료를 기부해 줄 시공사를 찾기 위해 애썼다.

특히 그는 심각한 투병 중에도 사원 재건축을 위해 열의를 보이고 있어 다른 불자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폐병과 루푸스(lupus), 폐성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

그의 남편 대런 기스트(Darren Gist)는 "아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녀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매우 용감하다"고 찬사했다.

허브 애치슨(Herb Atchison) 웨스트민스터 시장은 "그녀는 오직 '마음'과 '영혼'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낸 일만으로도 놀랍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사원에 대한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불자들은 현재 임시 텐트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내년 4월 라오스의 고유 명절인 새해 행사 전까지 사원 재건축을 완료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기스트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스트는 "웨스트민스터 시장과 지역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사원이 완성되고 모든 불자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그러면서 "사원은 치료 받고 싶은 사람, 불교를 배우고 싶은 사람, 우리(라오스)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까르마파 거취로 인도-중국 기싸움

印 '불교 본거지' vs 中 '지도자 묶어두기'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적 불교 지도자로 꼽히는 17대 까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 33)와 전통불교 유산을 두고, 인도와 중국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유라시아타임즈가 인용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달라이 라마의 존재와 함께 자신들이 '불교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며 도르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통성'을 내세우며 미국에 까르마파를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르제는 지난 1년간 건강상 이유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 일각에서는 '망명설'도 제기됐으나 도르제 측은 '단순 건강상 문제'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도르제가 올해 말 인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향후 양국의 이해관계에 각종 추측이 일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인도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의 존재와 함께 불교 사상의 요람이 되기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달라이 라마 이후 시나리오에 주목하면서 영향력 있는 성직자들을 자국에 묶어두려는 계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17대 까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더텔레그래프

까르마파는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속한 겔룩파보다 200년 이상 앞선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다.

환생을 믿기 때문에 티베트 중부지역에서 출생한 도르제는 지난 1994년 11살 때 17대 카르마파로 추대됐다. 인도와 중국은 현재 모두 도르제를 17대 까르마파로 인정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